

“번역 메모리 활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토론문

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michsung@hufs.ac.kr

박소영 교수님의 발표는 번역이 우리 일상 생활과 제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서 인문학 분야 인기 키워드 1위가 ‘번역’이라는 것 역시 번역이 각 학문에 깊이 관여함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통시적 기술을 볼 수 있었고 학제 간 연구를 제시하셨는데,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때, 본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흥미롭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과 어휘는 상당 부분 번역을 통해 수용되었습니다.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개념도 종래 우리 문화권에 이미 있었으나 번역을 통해 어휘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어휘 중에도 faggot, dyke와 같이 아직 ‘맞춤한 단어’가 없는 경우 정착 과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PC) 운동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나 차별어로 기능하는 단어들이 시간 차를 두고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볼 때 번역어는 한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번역학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개별 작품 위주의 연구보다는 사전 편찬이나 어휘 연구 등 국어학이나 언어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욱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관련 표현이나 지칭어 중 아직 맞춤화된 용어가 없는 경우 이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특정 표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휘가 확립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개화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번역이 되거나 번역어가 그대로 수용되면서 기표가 한자인 경우가 빈번했지만, 현대에는 서구의 어휘가 직접 수용되면서 영어 어휘가 차용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음차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국립국어원의 주요 분야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편 번역학에서는 어휘장 측면의 연구 이외에도 성소수자 문학이나 희곡, 영화 등의 전반적인 수용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번역 사례를 통해 시대적 어휘 변화 부분까지는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인 맥락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기존 연구처럼 번역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휘가 서로 다르게 번역되는 양상,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번역 실천, 결텍스트

를 통해 드러나는 번역서의 수용 등의 다양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찰 결과가 어떠어떠하다고 하는 기존의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 이외에, 왜 그렇게 번역되었는지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요컨대, 어휘 체계와 관련된 맥락화와 전반적인 수용과 관련된 맥락화를 위해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